

《침묵의 세계》 구판과 신판, 그리고 또 다른 《침묵의 세계》 “아뇨, 지금 생각하시는 그 책하고는 또 다른 책입니다”

누군가에게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항상 거치는 절차가 있다. 상대방이 “아, 그 책...” 하고 아는 척을 할라 치면, 얼른, 그러나 너무 다그치지 말고 가급적 상냥한 말투로, “아뇨, 지금 생각하시는 그 책하고는 또 다른 책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글_박중서

《침묵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서점이나 도서관을 검색해 보면 아마 두세 권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막스 피카르트(1888~1965)라는 독일의 의사 겸 작가의 철학 에세이 《침묵의 세계》(이미 두어 군데서 번역본이 나온 바 있다)이지,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리고 제법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는 쿠스토의 해양 모험 논픽션 《침묵의 세계》는 아니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이 두 작품을 혼동하기 일쑤여서, 10여 년 전부터 헌책방을 드나들며 몇 번이나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카르트의 책은 이미 한 권 샀었지” 하고 생각한 나머지 가까운 책을 그냥 놓쳐버리곤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피카르트와 쿠스토는 전혀 다른 인물이며, 전자의 저서 《침묵의 세계》가 ‘침묵’에 관한 내용이라면, 후자의 저서 《침묵의 세계》는 말 그대로 ‘침묵의 세계’인 ‘바다’에 관한 내용임을 깨달았다. 결국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만남에서야 그 책을 구입했으며, 일독 후에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아 이후 종종 여러 사람에게 입소문을 내곤 했기 때문이다.

이런 혼동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서일까? 1982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던 《침묵의 세계》는 2004년에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한 개정판(웁킨이는 똑같다)이 간행되면서 영어 제목을 음역한 《더 사이렌트 월드》로 제목을 바꾸었다. 하여간 《침묵의 세계》는 쿠스토가 초창기에 벌인 여러 가지 수중 모험담을 서술한 논픽션으로, 그에게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준 스쿠버 장비의 발명 과정에서부터 난파선과 해저 보물 탐사, 수중동굴과 심해 탐사, 그리고 특이한 바다 괴물과 상어 등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최고의 모험 논픽션이다.

쿠스토를 모르신다고요?

그나저나, 쿠스토를 누구라고 설명해야 할까? 전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쿠스토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올 6월로 그가 타계한 지도 10년이 되었



다). 1970년대에 그의 해저 다큐멘터리가 TV로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에 대한 관심이 별반 높지 않다는 것은 이 책 옮긴이의 말마따나 “스필버그 이름을 모르면서 그의 영화를 즐겼고, 빌 게이츠를 모르면서 컴퓨터광이 된 것이나 다를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의 위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내 경우에는 쿠스토리는 인물에 대해 새삼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된 계기는, 수년 전 어느 주간지 기사에 그가 프랑스에서 매년 “프랑스 국민이 사랑하는 인물”이라는 인기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수년째 부동의 1위는 빈민구제 운동에 앞장서는 피에르 신부, 2위는 바로 쿠스토, 3위는 축구선수 지단이라는 기사를 읽으면서부터였다. 1위와 3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잘 알려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쿠스토만큼은 아무래도 명성이 덜하니, 이걸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으로서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최근 들어 그의 전기가가 두 권 번역되기는 했지만)

쿠스토의 명성을 확립해 준 것은 그가 해양 탐험가인 동시에 오늘날 ‘스쿠버’라고 불리는 호흡장치(잠수부들이 등에 걸머지고 다니는 공기통)를 개발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바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잠수복을 착용하고, 위에서 관을 통해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함에 비해 스쿠버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해양 탐사를 펼치는 한편, 환경보호 운동가로도 활약했다. 1956년에는 영화감독 루이 말과 공동 작업한 다큐멘터리 《침묵의 세계》로 칸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다.

《침묵의 세계》가 《침묵의 세계》와 다른 점

《침묵의 세계》구판과 신판의 가장 큰 차이는 표지와 판형, 그리고 도판이다. 구판은 옮긴이가 별도로 마련한 컬러 사진(붉은색의 산호를 배

경으로 뭔가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썉 벌리고 있는)을 표지로 사용한 반면, 신판은 쿠스토의 옆얼굴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실었다. 구판은 국판 페이퍼백에 그 당시의 관행대로 코팅 대신 비닐 커버를 씌워놓았던 반면, 신판은 신국판 하드커버가 되었다.

옮긴이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의 원서에 수록된 컬러 및 흑백 사진은 모두 동명의 영화 필름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다. 그중에서도 컬러 사진은 쿠스토의 활동에서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판에는 부득이하게 수록되지 못했다.(대신 잠수 전문가인 옮긴이가 소장한 다른 사진들을 참고삼아 책 말미에 수록해 두었다.)

그나마 한 가지 나아진 점은, 당시 인쇄 기술의 한계 때문에 컬러 및 흑백 사진은 아트지에 인쇄해 모두 맨 앞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내내 본문과 도판 사이를 바빠 오가야 했던 구판과는 달리, 신판은 흑백 삽화를 본문의 적절한 위치에 따라 배치해 두었다는 점이다.

또한 1980년대 초반 당시 소수에 불과하던 국내의 잠수동호인들을 위해 펴낸 책이어서 그런지, 이 책의 말미에는 “전국 다이빙 인스트럭터 명단”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협찬사와 잠수 관련 실용서의 광고가 여럿 들어 있는데, 2004년의 신판 역시 풍등출판사(번역자가 세운 잠수 관련 출판사)의 관련서 광고가 세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이 분야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수의 동호인을 중심으로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다. 아닌 게 아니라 옮긴이의 서문을 보면 구판 《침묵의 세계》는 수요가 많지 않은 까닭에 초판본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판매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5년 만에 다시 나온 이번 신판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는지? **☞**

박중서 님은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을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 《젠틀 매드니스》(공역)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등이 있다.